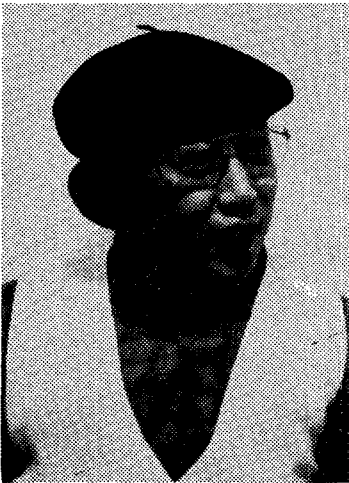


環境을 정말 保全하려면...



박 창 근
〈(社)環境教育會·위원장〉

環境人에게는 世俗的인 욕심이 없다.

남들 보다 돈을 더 많이 모아 땡땡거리며 살겠단가…… 또는 남들 보다 월등히 높아져 이 사람 저사람을 지배하고 살겠단가…… 흔히, 세상에서 착각하고 있는 「出世」라고 하는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먼 정도가 아니라 環境人이 된 날부터 그런것과는 담을 쌓아 놓은지가 오래다.

環境人의 욕심은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환경 보호의 일이라 汚染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소식 정도가 環境人에게는 鼓舞的인 욕심일 뿐이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 줄어든 汚染의 결과가 環境人의 희생적인 노력에 의해서였다는 확증이 함께 발표되어 사람들이 環境人의 存在를 인정해 줄때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진함이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가 없으면 곤란해 지지만 環境人은 汚染이 없어야 신나고 마음 편히 두다리를 쭉 뻗고 잘수 있는 것이다.

環境人은 先天的으로 간이 작다.

남의 돈 몇 천만원, 나라 돈 몇 백억원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잘도 꿀꺽이는 세상에 環境人은 자기 것도 아닌 남의 재산이 汚染으로 손해 볼까 봐 100 만분의 1인 ppm때문에 별별 면다.

또 남들이 흠쳐가지도 못할. 공기와 江물이 어떻게 될까 봐, 자동차가 조금 늘어나도, 소비가 조금 확대 되어도 공연히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그래서 環境人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들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며, 비싼 것이 아닌

세속적으로는 값싼 것들 뿐이다. 그 하잘 것(?) 없는 몇가지 조건으로 돈 주고 사올수도 없는 우리의 환경을 애써 지켜주고 있는 環境人의 士氣를 鼓舞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國家的 利益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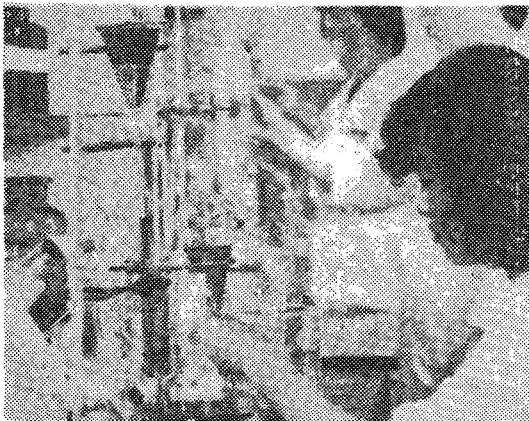
열 다섯번째를 맞는 「世界環境의 날」에 環境人의 순진한 욕심을 정리한다.

1. 環境 전공의 전문 高等學校를

그동안 社會的 측면에서 商業高等學校나 工業高等學校등 實業系 高等學校 출신의 人材가 각계 각층에서 유용하게 活動하고 있음을 본다.

특히 實業系의 高等學校에서 전공 大學의 進學이나 전문 분야의 진출에서 얻는 成功은 다른 분야의 出身 보다 확실하고 빠르다.

즉 여러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어느 分野보다 중요하고 전문성을 띠



어야 할 環境문제에의 경우로 보아, 環境 전공의 전문 高等學校가 신설되어야 한다.

環境人의 早期 배출 뿐만 아니라, 環境에 대한 正當한 인식과 價値觀을 분명히 한다는 뜻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個人의 利益 보다는 國家와 人類의 利益을 위해 環境분야 전공을 택한 環境계통 高等學校 學生들에게는 마땅히 應分の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國家의 입장에서는 장래 國家의 資産인 環境을 지켜 줄 일꾼이라는 개념에서 全學年 학비를 면제 시켜 주어야 하며, 企業에서는 이들이 면학에 충실할 수 있도록 個人生活을 위한 장학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環境研修院의 新設, 擴大를

현재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새마을 교육회가 全國적으로 상당히 운영되고 있으며, 그 교육적 성과는 아프리카의 여러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직접 현장 교육을 받으러 올 정도로 매우 크다.

「새마을 운동」이 “잘 살기 위한 운동”이라면 「자연보호 내지 환경보호 운동」은 “살아남기 위한 운동”이다.

잘 살게 여건을 갖춘 후 줄어도 좋다는 論理가 아니라면, 현재 「環境保護 研修院」이 全國적으로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國家的 차원에서 市, 道에 1個所씩 「環境保護 研修院」을 新設해 이나라 장래의 환경을 지키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環境教育은 國庫로 치뤄져야 하며, 환경

교육 이수자는 응분의 社會的, 國家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3. 環境公務員의 專問職化를

현재 우리나라의 自然保護 문제를 官主導로 하고 있는 곳이 內務部의 「자연보호課」다. 그리고 「자연보호 담당관」이 있어 자연보호 운동을 총괄하는데, 지금은 경상북도 지사로 있는 李相培씨가 한때는 초대 자연보호 담당관으로 우리나라의 자연보호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폭제 역할을 한적이 있었다.

1977년인가? 의논할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內務部 자연보호 담당관실로 李相培씨를 만나러 간적이 있었다. 자연보호 운동에 대한 의례적인 의논으로 생각했었는데 한 두어시간 얘기를 나눠보니 전문가 뺨칠 정도로 生態界 전반은 물론, 세계 각국의 자연보호 현황을 소상히 꿰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쪽 구석엔 며칠 전 일본에서 수집해와 연구하고 있다는 자연보호 관계 전문 서적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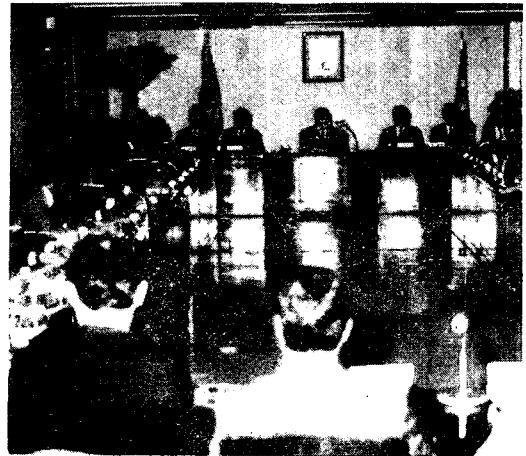
솔직히 말해 의외였다. 부하직원으로부터 적당히(?) 보고 받아 官的으로 결재해 처리하면 될(?) 캠페인의 일을 애써 전문 서적을 뒤져 學問的으로 자연보호의 일을 정리하고 있었으니…… 고맙고 마음 든든 했었다.

그래서 본인에게 좀 섭섭한 일일런지는 모르겠으나 내 욕심은 그분이 그자리에 오래 있었으면 했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氏는 더 좋은 자리(?)를 향

해 떠났다. 그리고 다시 다른 분이 그자리에 앉아 또 열심히 자연보호를 익히고, 일이 손에 잡혀가는가 싶을때 또 떠나고, 다시 다른 분이 오고…… 그렇게 자연보호 담당관은 짧게 1년여, 길게 2년여를 재직하고 떠났다. 안타깝고. 뭔가 국가전으로도 손해를 보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어

다른 공무직은 몰라도 환경관계 공무원은 평생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느해 內務部가 주관한 자연보호 세미나에서 筆者는 「자연보호 담당관」의 永久職化(?)를 꾀하기도 했었다.

즉 環境 문제는 다른 分野와는 달리 高度의

專問化를 요하는 分野다. 특히 하루, 이틀……

1~2년내에 그 職의 성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職種이다. 적어도 3년내지 5년 이상 종사해야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分野다.

그래서 단 公務職은 몰라도 環境 관계 公務職은 平生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環境公務職에는 國家가 별도로 平生職 수당을 배려한다던가 또는 승진의 기회를 自動化(?)시킨다던가 하는 어떤 획기적인 政策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環境廳 公務員의 업무와 자세가 일반 他 公務員과는 달리 거의 專問家化되어 가고 있음을 본다. 매우 든든하고 반가운 일이다.

廳長으로부터 고용직원에 이르기 까지 環境문제라면 專問教授 이상의 신념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분들이 이 나라 環境 문제를 平生 책임(?) 질수 있도록 튼튼한 보장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4. 「環境廳」을 「環境保護部」로

「環境廳」이 「環境保護部」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當爲性에 대해서는 이 協會報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新聞이나 雜誌 등을 통해서 목이 쉬도록 주장해 왔다.

國家發展을 위해서도, 安保의 차원에서도 環境保護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他部處의 業務에 짓눌려 외면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環境業務는 승격되어야 한다고 누누히 지적해 온 것이다.

즉, 國家의 최우선 조건이 領土라면 그 「領土權」을 이루는 공기와 물, 그리고 토양 조건이 病들지 않은 쾌적한 조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관리하는 環境業務는 國家業務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여야 하고, 國防이 可視的인 敵을 막는 일이라면 環境保護는 보이지 않는 敵(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막는 일로 國防과 同格의 위치에서 環境保護를 評價해야 한다고 力說해 왔다.

따라서 「環境廳」의 「環境保護部」 승격은

「환경보호」는 국방과 동격의 위치에서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청」의 「환경보호부」로의 승격은 빠를수록 이익이고 좋다는 욕심이다.

빠를수록 利益이고, 좋다는 욕심이다.

5. 環境 관계 業務의 統合을

손(手)이라고 하면 손가락을 포함해 손등과 손바닥을 통칭한다. 따라서 손바닥만 손이라고 우길 수 없고, 손등만 손이라고 우길 수 없듯이 自然保護 문제를 1차적으로 공기와 물 그리고 토양을 논의하는 현재의 環境 문제를 서로 別個의 것으로 생각해 行政 처리를 二元化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따라서 현재의 內務部 소관으로 되어 있는 自然保護, 海洋汚染 관계 業務는 마땅히 環境廳 산하로 이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科學技術處의 原子力, 방사능 公害 관계, 農水産部의 農藥 輸出入 및 사용, 商工部의 工業團地 및 工團지

도 관계, 建設部の 國土綜合계획 관계, 公園, 土地開發, 河川과 上下水道 관계, 특히 下水終末處理場 관계, 交通部의 자동차 정비 및 검사 관계, 관광 자원, 관광지 관계 文化公報部の 天然記念物, 명승 관계, 山林廳의 山林保護, 野生動物, 山地 관계, 水産廳의 水産資源保護 관리, 鐵道廳의 철도 조경, 영림 관계 그리고 海運항만청의 항만 선박 오염방지 관계 등의 모든 업무도 環境廳에 이관되어 보다 合理的이며 統合된 環境保護 政策이 펼쳐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도 環境廳이 環境保護部로 승격되어야 하며, 科學技術處, 山林廳, 農村振興廳, 水産廳, 鐵道廳, 海運항만청 등이 環境保護部 산하로 흡수 統合되어 이 나라의 環境이 정말로 保護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6. 1~2급 환경 기사의 처우 개선을

솔직히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環境汚染을 일선 현장에서 지키고 있는 1~2급 환경 기사의 처우는 매우 각박하고 他職種의 기사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초급 대학 졸업자로서 2급 자격을 취득한 기사가 받는 월급이 20만원선에도 못미치며,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1급 자격을 취득한 기사도 초봉이 25만원선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企業主의 無識과 물 이해로 「電氣技士」「熱管理技士」와 같은 대접도 못받아 不必要한 存在(?)다. 法에 의해 마치 못해 두고 있는 存在(?) 정도로 취급 당해 權益은 커녕 항상 失職, 減員 대상의 우선 순위에 처해 있다.

따라서 그들의 權益이 法으로 強制되어야 하

는데, 우선 처우의 현실화로 2급 기사는 본봉 35만원선 이상, 1급기사는 본봉 50만원선 이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별도로 年間 研究費로 3백만원 이상씩 지급해 技術開發의 向上을 위해 研究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業務 종사자와 똑같이 승진의 기회를 주어 「만년 管理人」「만년 係長」정도의 처우를 法으로 감시해 「環境課長」「環境工場長」「環境理事」제를 도입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특히 全國의 環境管理人에게 司法權을 부여해 自社는 물론 他社의 公害排出도 감시할 수 있도록 法的으로 制度化해야 환경 기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나라의 環境도 쾌적해질 수 있을 것이다.

7. 「環境의 날」의 制定을

環境人の 입장에서는 1년 365일이 「環境保護의 날」이지만 특별히 「環境의 날」을 制定해 環境의 중요성을 각성하도록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

우리의 憲法에는 基本權으로서 「環境權」이 明文化 되어 있다. 따라서 이 權理가 정당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法으로 「날」을 制定하는 것은 憲法守護에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예비군의 날」「조세의 날」 무슨 무슨 「날」이 많아 새삼 「環境의 날」에 대한 문제가 是是非非 될 수도 있겠지만, 남의 나라 憲章을 표절한듯한 自然保護憲章을 기념하는 「自然保護憲章 宣布의 날」이나 유치한 「育林의 날」 대신 「環境의 날」을 制定하는게 더 合理的이

며 타당성이 있다.

현재 1972년 스톡홀름에서 「인간 환경 선언」을 발표한 날을 기리는 6월 5일 「世界 環境의 날」이 非政府的 차원에서 기억되고 있기는 하나, 따로 우리의 「環境의 날」을 制定해 主權 國家

각종의 많은 훈장이 수여되었지만 환경보호 분야에의 훈장수여는 지금까지 너무 인색했다.

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民間主導로 지난 1월 18일을 「環境人의 날」로 各界各層 環境人 70여명으로 可決, 制定한바 있어 季節的으로 또 民族的으로 상서로운 9~10월경의 어느 날을 택해 「環境의 날」로 命名하는 것도 좋으리라.

8. 「環境保護 훈장」제도를

훈장이란 國家와 社會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國家 최고의 예우다. 따라서 國家發展에 功이 클 수 밖에 없는 環境保護 분야에 많은 훈장이 수여되어야 함은 당연한 理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왔다. 40년 세월이 각종 격식의 훈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여되었지만 1차적으로 國家를 지키는 環境保護 분야에는 훈장 수여가 너무나 인색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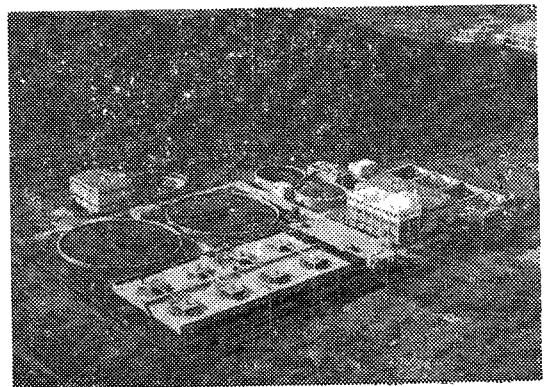
유사 이래 최초로 環境保護 분야에 훈장(국민훈장)이 수여된 것은 1982년 12월이었다. 延世大의 權肅杓씨, 環境保全協會의 盧在殖씨, 高麗大의 車喆煥씨, 京鄉新聞의 朴魯敬씨 그리고 筆者등 다섯 사람이었다. 당시 環境人의 기대는 컸으며 士氣는 높았다. 왜냐하면 훈장 수여는

政府的 차원의 環境保護 의지로 評價 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環境保護의 活性化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후 오늘까지 環境保護 分野에 훈장이 수여된다는 소식이 없다. 그래서 섭섭하다. 훈장의 명예적 측면 보다 環境保護의 중요성에 대한 國民의 認識을 더 意識하기 때문이다.

環境保護 分野에 많은 훈장이 수여되는 것은 그만큼 環境保護에 대한 國家의 意志가 높다는 것을 상징하고, 따라서 國民으로 하여금 環境保護에 대한 認識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그 어느 分野에 앞서 環境保護 훈장은 많이 수여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별도로 「새마을 훈장」과 같이 「環境保護 훈장」이 制定되었으면 더욱 좋겠다.



〈사진은 반월염색공단중합폐수처리장〉

9. 環境保護를 위한 분위기 造成을

環境保護를 위한 분위기 造成과 環境을 保護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 보다도 우선, 社會 전체가 環境保護의 분위기로 刷新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個人的 일부터 國家의 公益 사업에 이르기까지 環境保護가 國家의 利益이 되고 發展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메스컴이 총 동원되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環境保護를 주제로 한 드라마, 다큐멘타리가 전과를 타야하고, 公害의 1차적 원인일 수 밖에 없는 過消費, 虛榮的인 消費를 억제 시키도록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야 한다.

新聞 雜誌에서도 마찬가지로 國民의 意識을 環境保護쪽으로 유도하는 記事를 증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아울러 지금 제한 되어 있는 刊行物 등록에



<본협 주관의 환경보전캠페인 '85.6.5>

있어 環境誌, 紙의 許可를 규제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發行되고 있는 誌, 紙에 대해서는 國庫 보조, 세금 감면 등의 과감한 行政的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요즘 消費者 단체의 눈부신 活動에 힘 입어, 각 메이커에서는 消費者 상담실 같은 바람직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한발 더 나아가 公害 상담실도 함께 운영해, 「좋은 物件」 「정당한 가격」 「충분한 事後 서비스」보다 生産, 事用, 廢棄 과정에서의 公害 발생적 원인을 제거해 주는 상담실의 운영이 時急하다.

그리고 市, 郡에 環境保護 전서관을 常設 운영해, 汎國民的 차원에서 環境保護를 生活化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이외에도 公害를 막고, 環境을 保護할 수 있는 길은 무궁 무진하다. 따라서 國民發展과 國民和合을 위해 環境이 정당하게 評價되고, 環境保護의 當爲性이 自發的으로 우리 나오도록 國家는 과감한 투자와 行政的 조치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環境人에겐 世俗的인 욕심이 없다. 오직 보다 쾌적한 環境에서 人間다운 품위로 國民이 잘 살아주기 만을 욕심낼 뿐이다. *

